

도교육청 하반기 학부모교육 '풍성'

독서토론·재능기부·미세먼지 퇴치 등 다채

9월 새학기를 맞아 전북교육청의 학부모교육이 풍성하다. 우선 유대인 질문토론으로 알려진 '하브루타 토론학습법'이 4차시에 걸쳐 전주 중부비전센터와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탈무드 하브루타 리딩 ▲하브루타 리딩 스킵 ▲하브루타 리딩 활용사례 등이다.

이와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에너지교육도 진행된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탈핵을 주제로 도내 2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아빠와 자녀 간의 정서 교감을 위한 아버지교육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팝업놀이, 과학놀이 등을 주제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강좌인 '부모성장 달빛학교'도 9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오디세이 학교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매달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교육아카데미도 열린다. 9월에는 정희진 여성학자가 '한국사회의 구조와 젠더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학부모 재능교육도 활성화된다. 학습더딤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하는 '학습친구 엄마샘 심화과정'이 9월부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4군데에서 진행된다.

또 동화연극 자원활동가교육도 추진된다. 군산과 익산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동화연극에 필요한 발성, 교구 제작 및 활동 등이 주된 내용이다.

'생활 속 사이언스맘 자원활동가교

육'도 진행된다. 김제와 완주에서 과학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 속의 다양한 과학원리와 이론과 실습을 하게 된다.

놀이교육을 전파하는 '자원활동가 방과후교육'도 진행된다. 김제 장수 무주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놀잇감 만들기, 전래놀이방법 등을 교육한다.

'미세먼지 예방 초특식물 가드너교육'도 추진한다. 9월부터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며 ▲환경호르몬 제거식물 심기 ▲페트병을 활용한 공기정화용 심지화분 만들기 등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청소년창의기술아카데미 호남·제주권역 참가학생 모집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는 제13기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창의기술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기술소양 증진을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전북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봄·가을학기를 개최해 왔다.

모집 대상은 호남·제주 권역 내 중·고생 중 정보와 기술·과학 담당 또는 답답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이며 모두 8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홈페이지(<http://tstar.or.kr/tree/jonu/>) 공지사항에 첨부된 참가지침서,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처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8일까지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이번 13기 교육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App Inventor 프로젝트 교육과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App Inventor 프로젝트 과정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진행되고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과정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2회 교육 및 12월 27~29일까지 2박3일 겨울캠프로 진행될 예정이다.

App Inventor 프로젝트 및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면서 ICT 융합 스마트 기술 특강 및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방학 집중 캠프에는 팀별 프로젝트 관련 UCC 제작 및 이공계 진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져 2박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꿈속에서 그리던 우리 집이 생겼어요'

비닐하우스 살던 김희진이네 가족 '내 마음속 사랑 집' 남원 1호 입주

"꿈속에서 그리던 아름다운 우리 집이 생겼어요."

남원시 이백면 남평리 김희진(이백초 4년) 어린이네 다섯 가족은 30일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희진이네 새 보금자리는 66㎡(19평) 규모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남원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공동으로 추진한 '내 마음속 사랑 집이 나타났다' 남원 1호 집이다.

희진이네 새 집은 지난 3월 31일 초록우산 전북본부와 위기가정 발굴·지원 협약으로 주거 신축비 5,500만원을 지원받아 맞춤형으로 완공하였다.

부족한 건축비는 지난 5월 남원시 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 240여명이 후원금을 약정해 의미를 더했다.

또, 남원시, 이백면사무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등 재능기부자와 세플러코리아, 전북개발공사 후원, 7733부대 3세대 자원봉사 등 여러 손길들이 힘을 보탤었다.

희진이는 아빠, 엄마, 오빠 현우(초등 6년), 동생 희원(초등 2년) 다섯 식구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아왔다.

특히, 희진이네 가족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마을 주민, 이환



남원시 이백면 남평리 김희진(이백초 4년) 어린이네 다섯 가족은 30일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 '내 마음속 사랑 집'이 나타났다. 남원 1호점으로 이사했다.

주 남원시장, 서거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소용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하여 희진이네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또, 많은 후원자들이 생활용품 전달하며 희진이네 새집 입주를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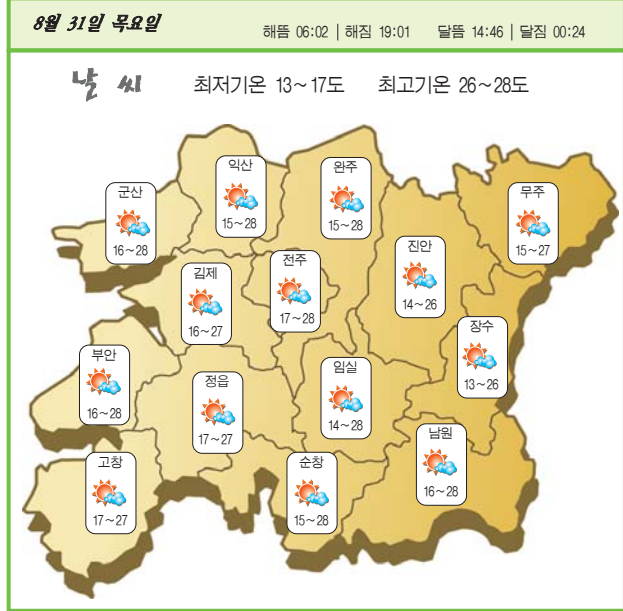
이환주 시장은 준공식 인사말에서 "희진이네 가족이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제2, 제3의 희진이네 가족이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내 마음속 사랑 집이 나타났다'를 통해 지원받은 희진이 아버지는 신축과 준공식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 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기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이동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주거, 질병, 생활, 학습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재단이다.

희진이네 새 집은 초록우산 6호점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대 교수 19명 정년기념식 거행

"교수님들의 빛나는 열정과 업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평생을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19명의 전북대 교수들이 30일 정년기념식을 갖고 정든 강단을 뒤로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북대 진수당 강당에서 열린 정년기념식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퇴임 교원 가족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8월 말로 정년을 맞은 교수는 남기석·정봉우 교수(화학공학부)를 비롯해 조좌형 교수(동물자원과학과), 이진규(독어교육과), 송기도(정치외교학과), 신환철(행정학과), 이상만·오유근(경영학부), 송채현(무역학과), 박재현(의학과), 백홍선·이

현구·이대열·정애자·최종범(의학과), 이한창(일본학과), 양문식(분자생물학과), 여음동(생명과학과), 정재일(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퇴임 교수들에 대한 약력 소개와 함께 훈장 전수 및 공로패가 증정됐고 모든 교수들이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이남호 총장은 송덕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내신 연구와 교육적 성과는 후학들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비록 강단을 떠나시더라도 평생 업적을 빛나게 가꿔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해주시고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격려의 조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사대부고 밴드부 BEAT '생생樂 페스티벌' 대상 상금 일부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학교 밴드부(BEAT)가 2017 생생樂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BEAT는 지난 10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JT가 주최하고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제8회 생생樂 페스티벌'에서 함께 본선에 진출한 전북도내 8개 학교와 경연을 벌여 대상을 차지하는 기쁨을 봤다.

이들은 대상 상금 100만원 중 일부

를 어린이들을 위한 일에 써달라며 내놓았다.

조희 학생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받은 노력의 결과로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도 우리처럼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영근 교감은 "우리 학생들이 대견한 결정을 해주어 교육자로서 성취감을 느끼며 앞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계속 이어지도록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고 고귀하게 해주는 교육의 토대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령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